

나의 통나무 대학

장윤석

미국 장로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 “통나무 대학(Log College)”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명했던 분이 “길버트 테넨트(Gilbert Tennent, 1703~1764)”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헛필드와 함께 미국의 종교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점은 이 통나무 대학이 정규 대학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통나무집에서 신학을 공부할 따름이었습니다. 길버트 테넨트 목사님은 아버지에게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영적, 학문적 역량이 매우 탁월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라브리는 “나의 통나무 대학(My Log College)”입니다. 라브리란 제게 영적인 삶의 실재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 나의 라브리 이야기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교회에는 중학교 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리 좋은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취미삼아 교회를 다녔고 삶에 있어 위선적인 부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꿀과 같이 달콤하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제 스스로가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려던 저에게 죄는 여전히 사슬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로부터 온 반응은 한결같이 “너를 이해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냐?”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바로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출신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저술을 읽게 되면서 마음의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프란시스 웨퍼의 저작을 읽어 볼 것을 추천받았습니다. 웨퍼 선생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라브리공동체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으며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및 소량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the online library of L'Abri Fellowship Korea. All copyright belongs to the author. Printing, copying and small-scale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personal and group study.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라브리공동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25
☎ (+82) 033-673-0037 ✉ yangyang@labri.kr

www.labri.kr

쉐퍼 선생님의 저술도 머레이 목사님처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쉐퍼 선생님의 기독교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철학 부분을 가장 나중에 읽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은 “진정한 영적 생활(True Spirituality)”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쉐퍼 선생님의 저술을 거의 다 읽게 되었습니다. 쉐퍼 선생님의 저술을 거의 다 읽었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읽어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라브리 선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치열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라 공부하고 있던 대학원을 휴학하고 여름방학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간사님들과 손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며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진리에 대해 눈을 떠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라브리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궁금한 점도 많았고 삶에 있어서 계속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라브리에 방문했고 그 순간순간 성장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화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역량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문화라는 것을 잘 모르고 앞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 살아가는 것이 많이 급했습니다. 공부를 마쳐야 했고,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보다는 당장 내 삶을 경제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지만 삶은 참 우울했습니다.

라브리에 왔다 갈수록 조금씩 다듬어져 갔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삶을 바라보는 자세도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하나씩 배우면 나중에 멋있는 내 자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브리에 올 때마다 뭐 배울 것은 없을까 하며 자꾸 두리번두리번 거리게 되었습니다.

2. 핵심은 다른 곳에

공부를 하다 보면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전체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라브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화적인 부분도 중요했지만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The God Who Is There)”였습니다.

간사님들은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사람들에게 참된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바른 영적 실재를 가지지 않고는 돕는 일을 오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영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고 참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못

이 많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맑은 샘물은 그 못을 하나둘씩 빼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아프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아픈 일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재를 바탕으로 쉼퍼 박사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쉼퍼 박사가 진정한 영적 생활의 본질이 “감사”라고 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감사보다 선행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쉼퍼 박사는 아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영적 실재의 관점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생활입니다.

3. 만남과 결혼에 대하여

이번에 와서 깊이 고민한 주제는 바로 “연합”입니다. 바른 연합의 기초는 무엇인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고 쉽게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헌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향해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결혼이 자꾸만 조건적 계약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된 사랑은 젖혀둔 채, 조건이 맞으면 결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었지만 서로 간에 사랑이 없고 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생각하게 했던 조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우상이 되고 있는 시대에서 참된 사랑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급하다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것보다 그 자리를 비워놓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바뀝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스스로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연계를 바라보면 기다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나무도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비바람을 이겨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지혜는 저에게 넓은 안목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고, 역사는 장구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짧은 기간 동안 드라마틱한 변화를 바라는 것은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쉼퍼 박사는 결혼에 있어 사상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사상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부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상의 연합을 통해 힘든 세상 속

에서도 본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상의 연합을 통해 부부가 참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정은 가정에 평화와 힘을 주며 서로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결국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 연합뿐만 아니라 지적, 정서적, 영적 연합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참 소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이 간직하고 싶기에 말하는 것도 소중한 것이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저는 표현하는 사랑만이 진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소중한 보석입니다.

4. 기도에 대하여

저는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작은 차이라고 생각되지만 저의 삶에는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답답한 저의 심정을 보다 진솔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개는 걷히고 한 줄기 빛이 비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지만 기억나는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또한 회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질적으로 끊지 못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죄를 끊고 한층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리와 같이 늘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학기를 마치며

나의 통나무 대학은 늘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늘 새로운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많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저의 질문에 정성껏 답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 저는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다듬어졌습니다.

간사님들은 특별히 더 많은 애정을 쏟아 주셨습니다. 시간을 함께한다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인가 싶습니다. 간사님들은 지치고 바쁜 와중에서도 저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힘들 때 간사님과 상담을 하며 아픈 마음을 위로했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

을 마련했습니다.

라브리에서 떠날 준비를 하며, 진리를 말하되 인격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speaking the truth in love)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정말 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브리에서 배운 것을 온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